

‘오보청’·‘구라청’ 비난 쏟아지는 기상청 국정감사

국회 환노위 의원들 “올 여름 폭염일수·강수량 예측 빗나갔다” 추궁에 기상청장 “기후예측 모델 인공지능 접목 개선... 신뢰도 높여겠다” 답변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올 여름 기상 예측에 실패에 대한 청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이 주를 이뤘다.

기상청이 정 체육대회 날 비가 온 후부터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조롱 발언부터 기상청장의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날 선 지적까지 나왔다.

또 ‘오보청’, ‘구라청’, ‘기상망명족’ 등 기상청에게 뼈아픈 단어들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시로 거론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올해는 폭염·장마 예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기상 자료를 찾는 ‘기상망명족’이 늘었다”며 “기상청은 해외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있

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은 올해 6, 7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다고 예보했으나 실제 강수량과는 많이 차이가 났다”며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완전히 빗나간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지난 5월 22일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다고 발표했으나 6월 말 대기 상층에 공기가 정체하면서 수정 예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의 예측 실패를 비꼬는 의원들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구라청, 오보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며 “기상청 체육대회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1994년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온 이후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있

다.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상청은 올 여름 평년 9.8일이던 폭염일수가 가장 25일 늘어나며 더울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폭염일수는 3.9일로 오히려 평년보다 적었다”며 “또 강수량도 올해의 경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 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상 예년 대비 1.7~2배 이상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기상청 국감에서 나온 모든 내용이 오늘 또 다시 나왔다”며 “이러니 기상청과 관련해 ‘없애라’ ‘못 맞힌다’ ‘필요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의 기상청장이 있으면서 변화와 혁신, 개혁을 바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김 청장은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여름철 장기예보와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은 국민의 기대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기상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여름철(6~8월) 전망에서

올여름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기간 무더위가 아니라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졌다.

김 청장은 “5월 발표된 3개월 전망에서 7월 강수량과 기온 전망이 일부 빗나가 지적이 있었다”며 “기후예측 모델을 인공지능(AI)과 접목해 개선하고 산하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기후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관계기관, 언론과 소통해 신뢰도를 높여겠다”며 “향후 개선된 기후예측 모델은 2021년 11월까지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국민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국지적·돌발적 현상이 잦아져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집중관측을 확대하고 관측 자료를 수치 모델 입력자료로 활용해 예측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공간 통합수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무등산 생태탐방공원 등 국립공원 일부시설 운영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무등산 등 광주·전남 국립공원 일부 실내시설의 운영이 재개됐다.

환경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 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 시설 운영을 12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등산과 내장산 생태탐방공원 운영이 재개되고 무등산·월출산·다도해해상공원 내 야영장이 다시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국 국립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공원 내 숙박시설 운영을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재개한다. 매점·사위장,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도 개방하지만 대피소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시설 운영 정보는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등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역사회 AI기반 통합돌봄 케어 모델 구축

광주 서구-KT 사업제휴 업무협약... 어르신 건강·일상생활 모니터링

광주시 서구는 13일 “주식회사 케이티(KT)와 AI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케어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구와 KT는 AI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케어모델 구축에 상호협력해 광주 서구형 표준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는 통합돌봄 케어를 위해 AICC(AI Contact Center) 기술 및 솔루션 도입으로 돌봄어르신인 건강 및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는 등 돌봄 상담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CC란 통합돌봄 모니터링을 AI가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AI가 돌봄대상자에게 질문하면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담당자에게 연결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구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 8,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통합복지 대표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용규 KT전남전북법안고객 본부장은 “서구청과 협력을 통해 AICC플랫폼을 Health Care(건강관리) 영역에 적용해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이에 TF팀 운영으로 최선의 효과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합니다” 봉선119센터에서 진행된 이주여성 대상 소방안전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다. <광산소방서 제공>

폐가전 제품 무상수거 제도 홍보 부족 ‘있으나마나’

광주 서구의회 김영선의원 지적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운반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서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1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

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민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민이 직접 대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대상은 TV와 냉장고 등 49개 품목으로 수거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산강 일부 구간 홍수 취약 수해 예방 기능 강화 급하다”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 지적

영산강 일부 구간이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권 국가하천 99구간 중 13구간이 설계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설계기준해설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경우 100년 설계빈도 이상으로 치수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다. 100년에 한 번 이내로 하천이 범람하도록 하천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영산강 99개 구간 가운데 13개 구간의 설계빈도는 80년으로,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9월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기존 100년 설계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하천일지라도 일부는 3.7년에 1번 범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주장을 고려하면 설계빈도가 80년인 영산강권 하천 13구간의 경우 2.96년에 한번 꼴로 범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하천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준 상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기능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